

사건 개념에 의한 한국전통마당의 전의(轉依)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ccessive Circularity of Korean Traditional Yard by Simulacre Concept

김지은* / Kim, Ji-Eun

김개천** / Kim, Kai-Chun

Abstract

This thesis is to make it clear that simulacre concept of is an important factor that provides the motive to make spaces and to make it clear that yard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has more meaning of a container that contains the simulacres of life than formal aspects. Namely, focusing on the simulacres, among existing important factors that cause changes in architectural spaces such as structure, function, beauty, I shall make it clear that simulacre concept, which is a creation thinking of post-structuralism philosopher, Deleuze, is a logic that builds and changes spaces. Al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successive circularity of yard spaces with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simulacre concept that has virtual multiplicity and yard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 space of infinite emptiness.

When certain simulacres occur in the yard, the ambivalence of simulacres provides meanings to yard by affiliating numerous simulacre factors, then by combination among those meanings, yard get mutual dependence. This is an important core point that I have focused on the beginning of this research.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e successive circularity of yard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mulacres and the essence of yard.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is to have found out that yard has the meaning of "a bowl that contains the simulacres of life," going over the simple meaning as a space between door and fence. Also, the simulacre concept is thought to be discussed as a motive for creation of various spaces from now on.

키워드 : 들뢰즈, 사건, 전통마당, 허(虛)의 무한공간, 전의성(轉依性)

Keywords : Deleuze, Simulacre, Korean traditional yard, Infinite space of emptiness, Successive circularit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대적 인식에 따라 건축한 서구의 공간은 장대한 비어있음을 추구한 장대한 완성의 형태를 지향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동양에서는 그릇의 빈공간과 같은 고정된 모습의 크기와 형상으로 존재하는 건축을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불교의 연기론에서 보듯, '이것과 저것은 관계 속에서 생과 멸을 되풀이한다'는 순환적 생명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물체와 비어있음의 대대적 개념이 아닌, 비어있는 물질의 체계로 생명의 기운인 기(氣)가 차있는 태극의 허(虛)를 추구하였다. "진정한 시(詩)는

실상을 비추는 환영"이라는 에이츠의 말처럼 한국전통마당 공간은 허공으로 만든 우주를 비추는 환영이다.¹⁾

들뢰즈²⁾는 '내가 사건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은 내 삶의 사건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사건들을 산다는 것은, 마치 이들이 그 가장 뛰어나고 완전한 측면을 나로부터만 취해야 하는 것처럼, 나를 그들과 동시시하려고 하는 것이다'³⁾라며 사건이 인간과 뿔 레아 뿔 수 없는, 우리 삶 속에 이

1) 김개천, 명목의 건축, 2004, p.12

2)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 베르그송, 화이트헤드와 더불어 20세기 형이상학을 대변하는 프랑스 사상가이다.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송에 이어 자연주의적·유물론적 형이상학의 현대적 형태를 개척했다. 그의 사유는 '사건'과 '육망'을 다루며, 후기구조주의 사유에 형이상학적 깊이를 부여했다. 오늘날 그의 사유와 동양 사유를 비교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질 들뢰즈, 이정우 옮김, 의미의 논리, 1999, p.260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 박사과정

** 정회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미 존재해있는 그 무엇이라 강조한다.

이에 본 논문은 사건이라는 것이 마당설계에 사상적 배경이 되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인식하고 후기구조주의 철학자인 들뢰즈의 사건 개념이 공간을 구축하고 변화시키는 생성 논리임을 드러내어 여백으로 나타나는 한국 전통건축의 마당공간이 형식적 측면보다 삶의 사건을 담는 그릇의 의미를 갖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사건 개념과 '허(虛)의 무한공간'인 마당의 상호 관계성을 토대로 마당의 전의적 성격을 알아보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목표를 둔다. 디지털 건축에서 주로 다루지고 있는 서양의 철학 사유인 들뢰즈의 사건 개념과 동양의 건축 공간인 한국전통마당을 연결하고, 사건과 마당 공간 각각의 특성을 '전의(轉依)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연구함에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들뢰즈의 시뮬라크르 사유의 의미⁵⁾ 중 '사건'의 의미를 가진 개념을 다룬다. 마당의 전의성에 대한 분석 대상은 한국 전통가옥의 전형적 특성을 잘 갖춘 조선시대 양반가옥을 선정하였다. 주거 건축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생활과 직결됨으로서 거주자의 환경 인식적 측면과 내재적 사유방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표 1> 연구 대상 가옥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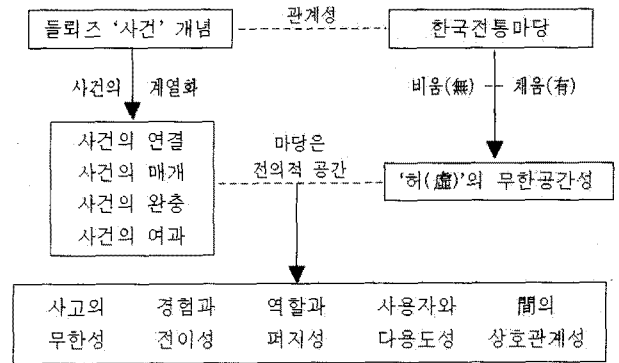
번호	명칭	주소	건립연대
1	김동수 고택	전북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18C
2	독락당	경북 월성군 안강읍 옥산리	16C
3	서백당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15C
4	정여창 고택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18C
5	추사 고택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19C

사건개념과 '사건 되기'의 공간인 마당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전통마당의 전의적 특성과 사건 개념과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마당의 공간적 해석을 '허(虛)의 무한 공간'으로 분석한다. 또한 사건의 계열화의 특징으로부터 발전된 사건의 연결, 사건의 매개, 사건의 완충, 사건의 여과의 역할로부터 마당에 전의성을 출현시켜 '마당은 핵 분열하는 순환체, 즉 전의적 공간'임

4)전의(轉依, asraya-paravrtti): '번거를 바꾸어 열반에 이른다'는 불교용어로서 전(轉)은 '굴리다'라는 뜻인데, '굴려서 버린다'라는 전사(轉捨)와 '굴려서 얻는다'라는 전득(轉得)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이처럼 끊임없이 열과 생을 반복하는 무한한 순환성을 나타내는 '전의(轉依)'는 본고에서 단순히 불교용어로서가 아니라 들뢰즈의 사건 개념에 의해서 '연속하는 순환체'가 되는 마당의 특성과 상통하는 뜻으로 해석되어 사용되었다.

5)시뮬라크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아 흉내 낼 대상이 없어 원본이 없는 이미지 그 자체로 현실을 대체하며, 현실은 대체 이미지에 의해 지배받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모사(模寫)를 뜻하는 말이며, 다른 의미로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사물이나 실체의 변화 없이 스쳐지나가는 순간적인 사건을 뜻한다.

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마당의 전의적 특성인 사고의 무한성, 경험과 전이성, 역할과 퍼지성, 사용자와 다용도성, 間의 상호관계성을 도출해 낸다.



<그림 1> 연구의 진행 과정

2. 사건 개념과 한국전통마당의 '사건 되기'

2.1. 사건(시뮬라크르, Simulacre)

시뮬라크르는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모든 사건 또는 자기 동일성이 없는 복제를 가리키는 철학 개념⁶⁾으로 반(反)플라톤적 성격을 띠게 되는 후기구조주의⁷⁾ 철학자 들뢰즈의 생성 사유 중 하나다. 시뮬라크르는 사건, 이미지와 거의 동일한 말이다. 순간적인 것,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 것, 자기 동일성이 없는 것이다.⁸⁾ 들뢰즈는 존재-이미지 되어 진 것'(being)이 아니라 사건-되기'(becoming)에 천착한다. 즉 명사(있음-존재)가 아닌 동사(되기-사건)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들뢰즈는 사물과 현상의 진리가 불변(성)의 것이 아닌 무수한 사건들에 의해 '되어가는 과정-되기'의 가변(성)에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은 순간에 존재하고 사라지지만 인간의 삶에 중요한 의미로 연결되는 것이 사건이라는 존재이며, 건축에 있어 이러한 사건이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확정짓는 의미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어 공간의 다양성을 만들어 내는 동기를 부여한다. 즉, 형태대생성에서의 시뮬라크르란 사건이 끊임없이 생성되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시간과 움직임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힘의 잠재적 형태와 표현으로 설명된다.

6)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1

7)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세례를 받았으나 그 한계를 느껴 새로운 길을 개척한 여러 철학자들의 사유를 편의상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결코 하나의 '시조'나 '학파'가 아니다. 이정우, 사건의 철학, 2003, p.42
극단적인 합리주의, 결정론의 구조주의 사유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간, 불연속, 카오스, 욕망, 권력, 신체 같은 개념들이 새롭게 얼굴을 드러내게 된다. 이 두 측면을 조화시키는 것이 후기구조주의에 주어진 과제이다. 이정우, 시뮬라크르 시대, 1999, p.38

8)이정우, 사건의 철학, 2003, p.66

2.2. 사건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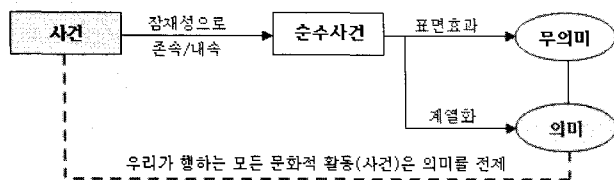
의미란 사건과 결부시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문화적 활동은 의미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의미를 전제함으로써 우리의 행위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 활동이 된다. 의미는 모든 문화의 선행적 조건이다.

(1) 순수사건과 잠재성

사건-의미의 존재방식을 위해 들뢰즈는 'Subsister(또는 Insister)'라는 용어를 쓴다. 실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존속/내속하는 것이다. 논리적 가능성으로서, 더 정확히 '잠재성'으로서 존재한다. 사건-의미는 물질성을 동반할 때 '실존'하지만, 잠재성(언표)의 차원에서 '존속/내속'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런 과정 전체를 '언표로 표현되는 순수사건'이라고 말한다.

(2) 의미와 무의미

사건이라는 존재의 특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표면효과(=무의미)라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라는 얼굴이다.¹⁰⁾ 여기서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한편으로는 무의미¹¹⁾에 불과한 표면효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미가 되는 것은 고립적으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건들과 계열화해서 생각하느냐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유명 연예인이 공사 중인 건물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데 위에서 벽돌이 떨어졌다. 벽돌은 다행히 머리를 비껴가 어깨에 맞았다. 여기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표면효과로 볼 수 있고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표면효과로 보는 경우는 이 사건은 연예인의 어깨를 이루고 있는 뼈, 살과 벽돌이라는 물체의 부딪침으로 물리적 사건, 물리적인 표면효과이다. 그러나 의미로 보는 경우 이 사건은 '연예인이 누군가(안티팬)에게 피격을 당했다'는 의미를 띤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사건이란 무의미이자 의미이다. 단순한 물리적 표면효과라는 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건들과 계열화됨으로써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림 2> 사건 - 의미의 관계성

9) 들뢰즈는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한다. '인간이 꿈꾸고 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와 자유, 효과 창출들에 기반 하는 순환들, 메아리들, 사건들이 이 모든 것을 가로지른다. 빈칸을 순환시키는 것, 전개체적이고 비 인칭적인 특이성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 요컨대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다.' 질 들뢰즈, 이정우 옮김, 의미와 논리, 1999, p.153

10) 이정우, 사건의 철학, 2003, p.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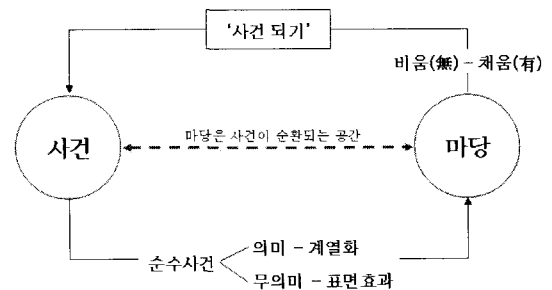
11) 무의미(non-sense)란 의미를 지니지 않은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렇게 때문에 의미 줌(zoom)을 수행함으로써 의미의 부재에 대립한다. 질 들뢰즈, 이정우 옮김, 의미의 논리, 1999, p.150

(3) 계열화의 특징

사건들은 계열화 되면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의미란 일정한 장(場) 안에 편입되어 계열화 된 의미를 말한다. 계열화의 방식인 합언, 연언, 선언의 특징은 마당에 전의성을 출현시키기 위한 사건 개념의 밀거름이 된다.

합언은 '접속(接續)'과 같은 뜻으로 생산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일정한 요소들이 '그리고'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사회-역사적 맥락에서는 기계들이 접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연언은 '통접(統接)'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만일...이라면, 그러면...'이라는 형식을 가진다. 어떤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유도되는 형식이다. 선언적 종합은 사건들이 선언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이다. 선언은 '이접(離接)'의 뜻으로 배제적 선언과 포함적 선언이 있다. 배제적 선언은 '또는'의 관계를 말하고, 포함적 선언은 '...이든...이든'의 관계를 말한다. 사회-역사적 맥락으로 넘어가면 분배의 과정으로 해석되며 들뢰즈는 등기라고 사용하기도 한다.

2.3. '사건 되기'의 공간인 한국전통마당의 이해



<그림 3> 사건 - 마당의 관계성

어떤 사건들이 마당에서 표면효과를 일으킴으로써 본래 마당에 잠재되어있던 수많은 사건(요소)들과 계열화되어 마당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의미들 간의 결합으로 앞으로 전개되어질 사건과 마당과의 관계 속에 전의적 특성이 발현된다.

(1) 조선시대 상류주택 마당의 구성

한국 전통건축은 채와 그 앞의 마당을 하나의 주거 단위로 삼는다. 조선시대 승유정책은 엄격한 남녀의 구별을 요구하였고 이로써 이루어진 내, 외구별은 주택의 공간구성에서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으로 분화시켰다. 또한 공자(孔子)에 의한 대가족제도로 인하여 한 주택 내에 가장을 중심으로 많은 가족이 생활함으로써 조선시대 주택은 각기 여러 공간을 갖는 6마당의 주거로 발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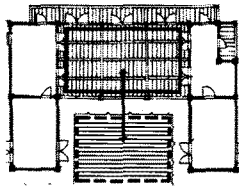
<표 2>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마당

마당의 종류	마당의 역할
행랑마당	하인들의 거주방, 마굿간, 외양간, 곡물 창고 등이 있는 행랑채에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공적인 공간으로서 거의 개방되어 있고, 추수 때에 공동작업장으로 쓰이기도 한다.
사랑마당	바깥주인의 주 거주처인 사랑채의 앞마당에 해당한다. 주인의 신분에 따라 규모가 커지며 주변에 정원치리도 하여 그 동네의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는 개방적 영역이 된다.
안마당	사랑 마당이나 행랑 마당을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직접 외부에 면하지 않는다.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구성되고, 기능적으로도 외부인의 출입이 상당히 제한되는 안주인의 배타적 영역이 된다.
뒷(고방)마당	부엌, 찬방 등과 연결되는 작업공간으로 장독대와 빨래터가 위치한다.
별당마당	과년한 자녀용의 보다 은밀한 공간으로 대개 출입이 제한되는 한적한 장소에 위치한다.
사당마당	유교의 조상 숭배 사당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장소로서 사당주위를 크지 않은 담으로 둘러쌓아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남겨 놓는다.

(2) 마당의 '사건 되기'로서의 역할과 의미

마당은 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오는 첫 공간이지만 마당을 둘러싼 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잠재되어 있던 사건과 결합하여 이 비어있는 마당과 연결되면 일시적으로 마당이 주변 프로그램과 계열화 되고 공간의 확장 및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잔치가 대청마루에서 벌어질 때, 손님이 넘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청마루에서 마당으로 잔치 영역이 확대되면, 사건은 '대청마루→마당'으로 확장되어 수용되고, 이때 마당은 연계되는 사건들에 의해서 대청마루의 연장이 된다. 그리고 모든



<그림 4> 대청→마당으로 확대

사건이 종료되면 다시 텅 빈 본래의 마당으로 돌아가 다른 사건을 수용할 준비를 한다.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순간적인 사건의 개입은 일시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는데, 규정되어진 이동의 흐름이 아니라 불규칙하고 예기치 못한 공간을 연결함으로써 사건들의 연속체, 즉 '되기'의 과정으로 공간이 형성하게 된다.

(3) 비움과 채움

마당에 다양한 사건이 수용되고 계속해서 변모하는 공간이 되는 속성은 마당이 집으로 진입하는 통로의 기능 이외에 비움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어있음은 사건의 발생에 의한 수동적 공간 변화로서 마당을 둘러싸는 프로그램들에 의한 사건이 잠재되어 있다가, 사건으로 표면화 되면서 주변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기능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공간점유자가 어떻게 계열화 하느냐에 따라서 마당이라는 공간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형태의 변화를 가지게 된다.¹²⁾

“진흙을 형성하여 그릇을 만들면 그 비어있는 허공에서 유용성을 찾게 되고, 집에 문과 창을 뚫게 되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유용성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존재는 유익성이 있고 무-존재는 실용성이 있다.” 埴埴以爲器 當其無有器之用

12) 김용진, 진정, 들뢰즈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통한 건축에 있어서 사건적 자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1호, 2005

鑿戶牖以爲室 當其無有室之用 故有之以爲利 無之以爲用 - 노자, 도덕경 11장¹³⁾

지나쳐 보기 쉽게 되어 있는 비물질적인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음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비어진 부분(Void)은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허공이 채워져 있는 부분(Solid)으로 언제나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 까닭이다.

'비움'은 실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상호간의 어울림으로 '채움'이 가능하도록 의미의 열려진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 비워진 바탕에 여러 사건(요소)이 담길 수 있도록 자리를 부여한다. 또한 비움은 자체의 의미로 한정 되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음으로 다른 개체의 의미를 흡수하며 또 다른 것과 관계 맺어 의미조합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고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마당공간에 잠재되어있던 사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다른 요소들과 관계 맺음으로 인해 마당이 확장과 축소를 반복할 때, 마당공간은 비움(無)과 채움(有)으로 순환하게 된다.

3. 한국전통마당의 전의성과 사건 개념의 상관성

3.1. 전의(轉依)성의 의미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불이며, 그것은 깨달음으로 성취된 진여(眞如), 무분별지혜의 경지이다. 유식(唯識)학에서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원리를 전식득지(轉識得智), 즉 현상계의 허망된 식(識)을 진여의 무분별 지혜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전식득지는 전의(轉依)로서 이루어진다. 전의(轉依)는 불교용어로서 번뇌를 바꾸어 열반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전의는 단지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다. 일체의 정화, 전 우주의 청정화라고 할 수 있다.¹⁴⁾ 전의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은 첫째, 자기와 우주가 청정하게 되는 것. 둘째, 신체와 정신이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 셋째, 자기 내면에서 최고의 참다운 실재가 현현하는 것. 넷째, 동시에 그 참다운 실재를 깨달아서 지혜와 그 작용을 얻음이다.¹⁵⁾ 본고는 이러한 전의의 의미를 공간 안으로 차용하였다. 공간이 다른 것들과 관계 맺으면서 멀하고 생하고를 반복하여 상호 생성이 순환되어 무한 공간으로 발전되는 성격을 공간의 전의성이라 규정하였다.

3.2. 공간적 해석을 통한 마당의 전의성

(1) 마당의 공간적 해석의 배경

기존의 논문은 외부와 내부의 단절 사이에 연결의 역할을

13) Amos Ih Tiao Chang, 윤장삼 옮김,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1996, pp.15-16
 14) 요코야마 코이치, 묘주 옮김, 唯識哲學, 서울:경서원, 1989, p.89
 15) 위의 책, pp.238-239

<표 3> 사이공간이 언급된 연구

사용 단어	연구자	제 목
사이 공간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이진길	한국전통건축의 사이공간적 특성
사잇 공간	이강훈	한국건축에 있어서 음양공간의 질서
매체 공간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회색 공간	김란기	한국전통주거공간의 기호론 적용에 관한 이론 마루의 공간적 의미
	이강훈	한국건축에 있어서 음양공간의 질서
매개 공간	이강훈	한국전통주거공간의 기호론 적용에 관한 이론 마루의 공간적 의미
	김란기	한국전통주거공간의 기호론 적용에 관한 이론 마루의 공간적 의미

하는 공간인 마당에 대해 <표 4>16)와 같이 사이공간, 사잇공간, 매체공간, 회색공간, 매개공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 전통건축의 마당공간이란 매개(매체)공간, 사이공간적 의미를 넘어선 우주(宇宙)를 담은 일체성의 공간이다.

(2) 허(虛)의 무한 공간



<그림 5> 만대루 입교당의 전경

병산서원 만대루를 살펴보면 입교당 사각마당의 공간적 틀은 점차 낮아지므로 거스름이 없고, 허(虛)만 남은 마당에선 밝은 빛이 나와 황양(滉漾)한 우주를 평온하게 포용한다. 그것은 현대 건축이 4차원의 통시적 시간 개념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비물질적 형태를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나 다르다. 공간과 시간과 형태가 주관과 객관으로 동일시되는 체계로 유형을 이룩한 무형의 자연과 같다. 본 논문은 마당공간을 유위(有爲)인 동시에 무위(無爲)가 되는 공시성을 지닌 허(虛)의 공간임에 주목한다. 마당은 실체가 있으나 변화하며 이어지는 허의 상대적 무한공간인 것이다.

<표 4> 마당의 공간적 해석 - '허(虛)의 무한 공간

마당 - '허(虛)의 무한 공간	
태극(太極)사상 - 허(虛)	음양(陰陽)사상 - 허(虛)
빈 공간으로써의 마당은 천지의 축(軸)을 갖는 태극(=중심)	양과 음의 조화에 의해서 생활공간으로써의 마당의 본성이 발휘

3.3. 마당의 전의성을 출현시키는 사건

들뢰즈가 언급하는 계열화의 방식은 합언(合言), 연언(連言), 선언(選言)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징이 마당공간에서 관계·발전되어 사건의 연결, 사건의 매개, 사건의 완충, 사건의 여과로 작용하여 마당의 전의적 특성을 출현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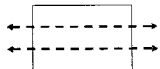
16)이진길, 한국전통공간의 무자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논, 2002에서 추가·재인용

<표 5> 마당의 전의성을 출현 시키는 사건의 도출

사건의 계열화 - '의미'					
방식	합언		연언		선언
동의어	=접속		=통접		=이접
의미	이어짐		수렴		발산
형식	'그리고'		'만일~이라면'	'또는'	'~이든~이든'
마당과 관계	사건의 연결	사건의 매개	사건의 완충	사건의 여과	사건의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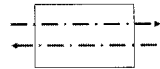
(1) 사건의 연결(連結; Connecting)

'합언-접속'으로부터 도출되는 사건의 연결은 마당에 잠재되어있는 사건 요소들을 각각의 채와 동선적, 시각적으로 연결하여 각 단위공간과 마당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을 유도하는 역할이다.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어 '무한성'으로 발전되며 마당과 채의 연결을 통한 상호관계성이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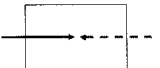
(2) 사건의 매개(媒介; Intermediating)

'합언-접속'과 '선언-이접'의 포괄적 선언으로부터 '사건의 매개'가 도출된다. 유사한 성격의 잠재적 사건들 중 성질이 다른 사건으로 전달되어 마당공간의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로서 마당과 각각의 단위공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따라서 공간이 전이 되고, 상호관계를 맺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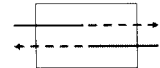
(3) 사건의 완충(緩衝; Buffering)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질적인 사건들 사이에서 켜로서 작용하여 사건들 간의 충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로서 마당 공간정서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한다. '연언-통접'은 사건의 계열들이 수렴하는 경우로써 사건의 완충으로 발전한다. 공간이 전이 되고 역할이 애매 모호해 지며(피지성), 여러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고 상호 관계를 맺는 경우에 다양한 사건을 완충해 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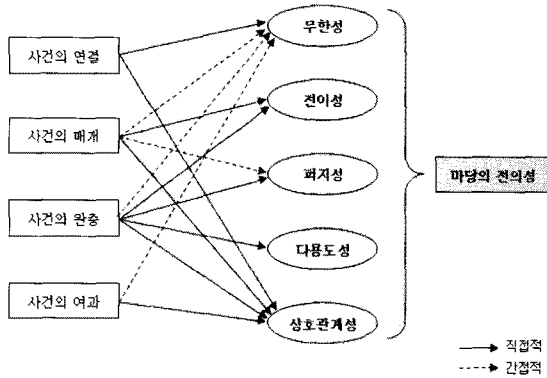
(4) 사건의 여과(濾過; Filtering)

계열들이 발산하는 '선언-이접'의 방식 중 배제적 선언에서 도출되었다. 이질적인 사건들 사이에서 마당과 각각의 단위 공간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사건들의 충돌적인 상황을 걸러 주는 역할로서 '개방'과 '단절'의 단순한 중간적인 의미가 아닌 사용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된다. 사건의 여과를 통해 마당 공간과 다른 공간 간의 상호관계성이 도출된다.



3.4. 사건에 의한 전의적 특성 도출

'허(虛)의 무한 공간인 마당공간을 장(場)으로 하여 사건의 연결, 매개, 완충, 여과로 나타나 마당에 전의성을 출현시킨 이 4가지 역할들은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관계를 맺어 한국전통 마당공간에 전의적 특성을 부여하게 된다.



<그림 6> 사건 역할의 관계를 통한 마당의 전의성 도출

4. 잠재적 사건이 내재된 마당의 전의적 특성

4.1. 사고의 무한성

공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고 열려있다는 것 보다는 사상의 깊이를 무한히 하며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전통마당 공간은 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하고 허구를 믿게 하며 무한한 사고로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 마당은 자연과 자아가 합일하고 융화하는 체험을 일상에서 하는 공간이다. 마당에 나무를 심는다는 사건은 꾸밈이 아니라 자연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어 자연을 더욱 자연스럽게 한다. 이는 마당에 우리 고유의 특징적 분위기를 자아내며, 자연 역시 건축이 되고 건축 또한 자연이 되는 혼연일체의 상합(相合)이 된다. 일상에 자연을 담아 놓은 마당은 무한대 사고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우주의 무한공간이다.

<표 6> 김동수 고택 마당의 전의성 - 1. 사고의 무한성

마당의 전의성 분석 가옥	사고의 무한성	
김동수 고택 (金東洙 古宅)		별채를 등분하듯이 곧게 뻗은 나무의 오묘한 조화로 자연과 건물이 하나가 된다.
		돌담을 둘러싼 나무와 크고 작은 장독대들은 안채 뒤의 후원을 포용한다.
김동수 고택은 풍수지리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가옥으로 마당공간에 심어놓은 나무로 인해 건물과 자연의 절묘한 어울림을 선사한다.		
독락당 (獨樂堂)		마당에서 본 계정의 모습이다.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가 지붕을 넘어 보이는 산과 이어져 계정이 자연 속에 파묻혀 버린 것만 같다.
	사색의 공간인 독락당은 은둔을 목적으로 한 폐쇄적인 건물의 배치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는 사건으로부터 자연 속에 파묻혀 버린, 마당으로부터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한 공간이다.	

서백당 (書百堂)		마치 숲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채의 마당이다. 하루에 참을 인(忍)자를 백 번 쓴다는 뜻인 서백당은 자연과 동고동락하는 또 다른 자연이 고사하였다. 500년을 지켜온 향나무의 마당은 무한대 사고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공간이다.
정여창 고택 (鄭汝昌 古宅)		사랑채 마당의 소나무는 뒤편의 별채와 포개져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인다. 정여창 고택의 마당은 '口'자 구조인 안채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연과 어우러진 하늘은 무한대로 열려있다. 또한 마당에 조화를 이룬 자연은 사랑채 마루에 누워 하루 종일 바라봐도 지겹지 않다.
추사 고택 (秋史 古宅)		마당에 심은 나무는 사랑채와 멀리 보이는 나무들과 어울려져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추사 고택은 사랑채와 안채가 일렬로 배치되어있는 특이한 구조를 띄고 있다. 마당도 분리가 아닌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며, 마당에 심은 나무는 건물과 저절로 합쳐져 무한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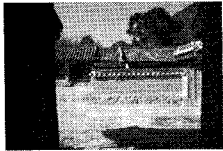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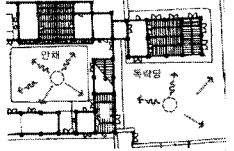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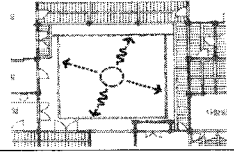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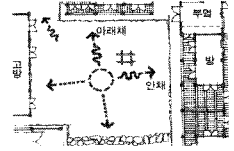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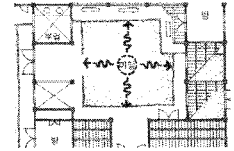
4.2. 경험과 전이성

전이성(轉移性)은 표현되는 행동이 다른 대상에 직접 옮겨가는 특성을 뜻한다.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까지의 접근 방법, 목적지의 도착 및 주요 행사, 되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의 이동 등으로 연계되고 각각 단위 행동이 체계 속에 전이 된다. 이질적 요소의 급격한 변화는 상황의 전환을 조절하고 완충 또는 매개하는 기능의 공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이러한 생활 정서의 요구를 전이공간이라 한다.¹⁷⁾ 인간이 이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전이의 의미는 한국전통마당의 전의적 특성으로 발현된다. 마당에서 인간은 1)시선이 변화함(시각의 이동)에 따른 감각적 경험과 다른 공간으로 유도되는 2) 동선의 변화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표 7> 김동수 고택 마당의 전의성 - 2. 경험과 전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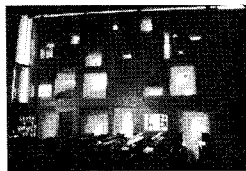
마당의 전의성 분석 가옥	경험과 전이성	
	시선의 변화	동선의 변화
김동수 고택 (金東洙 古宅)		
	채와 채를 잇는 마당공간의 시선 변화는 저마다 다른 공간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대문과 함께하는 행랑채(문간채)와 'ㄷ'자 구조의 안채를 연결하는 안마당은 다양한 동선 변화의 경험을 유도한다.

17)정무웅, 생활정서와 공간의 전이성,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1984, pp.9-10

독락당 (獨樂堂)			은둔을 위한 독락당은 미로 같은 동선을 따라 시선을 이동했을 때 자태를 드러낸다.	배치가 폐쇄적인 성격을 나타내지만 각 공간으로 동선이 유도되는 다양한 경험이 전이가 제시 된다.
서백당 (書百堂)			경사지에 위치한 서백당은 시각자의 눈높이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느끼게 한다.	채의 중심인 안마당은 '모'자로 둘러싸인 채를 넘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유도한다.
정여창 고택 (鄭汝昌 古宅)			사랑마당에서 시각자는 저 멀리 석가산의 원치를 경험하게 된다.	'ㄱ'자 형의 큼직한 안채는 마당으로 하여금 여러 공간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만든다.
추사 고택 (秋史 古宅)			안마당에서 대문간으로 시선이 이동하면 또 다른 세계로의 유도를 경험하며 동선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	중부지방 대갓집 형태의 '모'자 구조인 안채의 마당은 안방, 건너방, 부엌으로 동선을 연결하며 대문간을 넘어 사랑채로 이동하는 경험의 전이를 경험한다.


4.3. 역할과 퍼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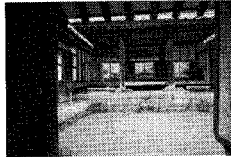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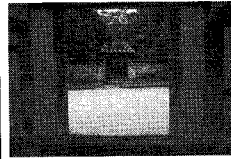
마당공간의 퍼지성이란 마당의 역할이 애매해짐을 뜻하는 것으로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당이 외부인지, 내부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르 꼬르뷔제의 롱상성당처럼 창을 통해 깊은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빛의 유희로도 잘 설명 된다. 마당이 다른 공간과 관계되어 확장과 축소로서 공간의 성격을 애매하게 만드는 사건은 대문의 개폐, 그리고 채의 들문과 창문의 개폐로 퍼지적 특성이 설명 될 수 있다.



<그림 7> 롱상성당 내부

<표 8> 김동수 고택 마당의 전이성 - 3. 역할과 퍼지성

마당의 전이성 분석 가옥	역할과 퍼지성	
김동수 고택 (金東洙 古宅)		안채로 들어가는 대문 - 대문을 닫아 놓을 때 외부였던 마당의 역할이 대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내부공간의 역할을 하며, 이때 마당은 퍼지적 특성을 갖게 된다.
	대문, 들문, 들창 등의 열고-닫음의 사건으로 인하여 내·외부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며 이는 마당이 단적으로 외부공간으로 구분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마당은 '허(虛)'로써 우주를 비추는 환영인 것이다.	

독락당 (獨樂堂)		독락당은 사색의 공간으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지만, 사랑 대청에서 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에 실창을 내어 시내를 바라보게 한 것은 자연에 융합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하고자 했던 이언적은 담에 실창을 내어놓는 아이디어로 사색을 즐기는 은둔의 공간을 창조했다. 직접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시각자의 시선이 담을 통과해 외부 자연을 볼 수 있음은 공간의 모호성을 나타내 준다.
서백당 (書百堂)		안마당에서 안채 대청의 들문을 열어놓아 안산 문필봉을 볼 수 있다.
		들문과 들창의 개·폐에 의한 마당의 역할은 퍼지적 특성이 나타난다. 문과 창을 열고 닫아놓는 생활 속 미세한 사건들은 마당의 퍼지성을 발현시키며, 이때 마당은 외부인 내부이고, 내부이며 외부인 전의(轉依)적 허(虛)의 무한공간이 된다.
정여창 고택 (鄭汝昌 古宅)		사랑채 안에서 창을 열어 마당을 바라보면 앉은 곳이 외부인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추사 고택 (秋史 古宅)		숫을 대문에서 사랑채의 마당과 저 멀리 안채까지 들여다 봄 - 배치가 특이한 추사 고택은 안채마당과 사랑마당이 한 공간인 것 같다.
		부엌 안에서 바깥마당으로 통하는 쪽문을 바라봄 - 부엌과 쪽문 사이의 안마당은 내부인지 외부인지 파악할 수 없는 애매한 공간이 된다.
		추사 고택은 숫을 대문을 통과함과 동시에 사랑채와 안채를 동시에 조망하게 되는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때문에 밖에서 숫을 대문을 열어 사랑마당을 바라보면 안마당까지 보여 두개의 마당이 통합된 한 공간처럼 느껴진다.

4.4. 사용자와 다용도성

다용도성은 옷이나 생활 도구의 쓰임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특성이다. 이규태는 다용도성을 갖는 생활도구들에 대해서 전통문화의 '환원성'으로 설명하면서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가 살다보니 거주공간이 좁아지고 그 좁아진 거주공간의 최대 활용을 위한 지혜'18) 혹은 '자원이 없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절감과 미개차원에서 단순이기의 다목적 이용'이라 설명한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다용도적 특성들은 경제적 빈곤이나, 미개한 비과학적 사고 등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용도적 특성은 한국인의 생활 속에 녹아있는 다치적(多值的) 사고를 통한 표출이다.19) 즉, 다치적인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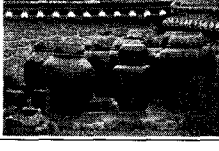
18)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3, 기린원, 1994, pp.122-128

19) 이진길, 한국 전통건축 공간의 무자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표 9> 때에 따른 마당공간의 사건-행위

때	사건-행위		공간
일상생활	가사/노동	빨래, 김장, 타작, 장작패기	마당
비 일상생활	의례	혼례, 제례	
	여가/놀이	취미활동, 명절놀이	

<표 10> 마당의 전의적 특성 - 일상생활 사건의 4. 사용자와 다용도성

일상생활 사건	가사 / 노동		독락당 안마당 - 안마당은 가을걷이한 곡식을 갈무리 하는 공간이다. 가을걷이가 끝났을 때 마당은 널어놓을 것들로 만된다.
			독락당 안마당 -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메주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진다.
			정여창 고택의 앞마당 곡간 - 앞마당은 추수한 곡식을 털거나 하는 타작마당 구실을 한다. 이 곡간은 여느 곳보다 규모가 크다.
			정여창 고택의 뒷마당 - 뒷마당에 장독대가 있는 경우는 흔하나 안마당 한편에 장독대를 마련하기도 한다.

<표 11> 마당의 전의적 특성 - 비 일상생활 사건의 4. 사용자와 다용도성

비 일상생활 사건	의례		전통혼례 - 신랑과 신부는 신부집 안마당에서 혼례를 치른다. 혼례가 끝나면 잔치가 벌어진다.
			거북바위 - 안마당에서는 하늘에 처성 드리는 일을 한다. 칠성을 새기거나 알터를 새겨 작은 규모의 제의를 진행한다.
	여가 / 놀이		널뛰기 - 여인들은 안마당에서 널을 뛴다. 그런 날 남자아이들은 팽이도 치고 제기도 친다.
			농악놀이 - 지신 밤 풍물패가 들어와 실컷 놀 수 있을 만큼 안마당을 넓어야 좋다.

를 아우르는 전의성(轉依性)에 기인한다. 특히 음양의 일원적 합일성에 의한 허(虛)의 무한 공간인 마당은 무수한 사건이 마당에서 펼쳐짐으로서 용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건의 출현은 마당 공간 사용자의 신분, 학식, 성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며, 다용도성 또한 주택마다 특이성을 지닌다. 사용자

박사논문, 2002, p.134

의 생활 사건은 일상과 비일상적 생활 사건으로 구분된다. <표 9>의 분류와 같이 본 논문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배제하고, 때에 따라 마당에서 벌어지는 생활 사건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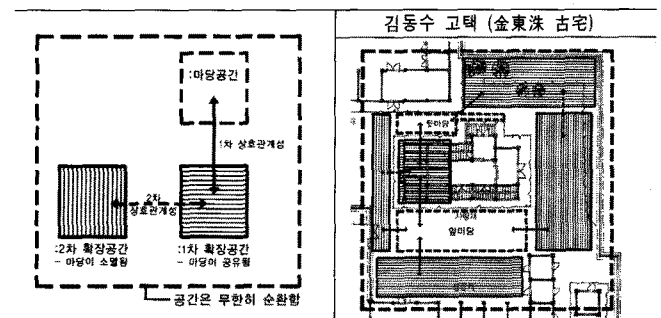
사용자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은 마당의 다용도성으로 나타난다. 마당은 이렇게 일상의 사건을 담는 무한한 그릇이 된다.

일상생활의 사건과 더불어 택일을 한 날이나 명절 때에 벌어지는 비 일상적 생활의 다양한 사건도 마당에서 수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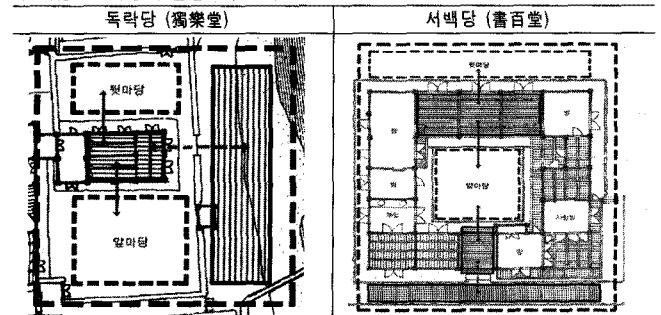
4.5. 間의 상호관계성

한국 전통건축을 구성함에 있어서 마당이 중간영역이라는 생각의 반으로 제시되었던 '허(虛)의 무한 공간성'은 채와 마당은 대립 정복의 의미로써가 아니고 마당이 작용에 참가하는 존재임을 설명한다. 마당에 전의성을 출현시키는 '사건의 연결·매개·완충·여과'의 역할은 서로 얽히고 섞여서 마당공간의 상호관계성을 드러내준다. 그것은 각 공간의 프로그램(사건)들의 사이(間)에 작용해서 관계들이 상호적으로 끊임없이 제공된다. 또한 혼성의 방식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마당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공유·확장하여 총체적인 하나의 공간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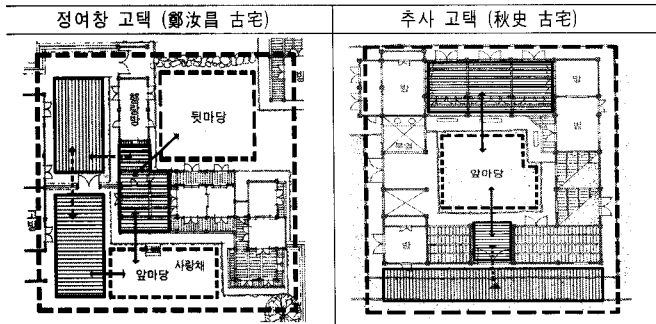
<표 12> 김동수 고택 마당의 전의성 - 5. 間의 상호관계성



김동수 고택의 사랑채 앞마당은 안채와 행랑채로 동선이 연결되는 마당으로 이어지게 되어 공간이 공유되고 또는 소멸(흡수)되기도 한다. 또한 뒷마루와 대청을 넘어 뒷마당까지 확대된다. 개방되고 유동적인 뒷마당은 우측 뒤로 독립적인 대나무 정원까지 연결되어 밑으로 내려와(뒷마당의 2차 확장) 다시 앞마당과 만나게 된다. 또한 좌측으로는 안채로 통하는 동선을 연계하는 마당과 연결되어 또다시 앞마당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한정된 영역이 아닌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건의 연결, 매개, 완충, 여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각각의 공간은 하나의 큰 개념으로 무한히 순환하게 된다.



독락당은 대청을 가운데로 각각 독립적인 앞마당과 뒷마당이 한 공간으로 연결, 확장된다. 또한 대청은 외부의 자연으로 시각적인 연결을 유도하여 마당의 공간 확장을 가능케 한다. 서백당은 앞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ㄱ'자 형태를 띤다. 앞마당과 뒷마당은 대청으로 하여금 확장되어 공간을 공유한다. 앞마당은 문간을 이어서 사랑채로 연결되는 동선공간과 상호관계를 맺는다.



정여창 고택 사랑채의 상호관계성을 나타낸 도식이다. 대청과 뒷마루는 다양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앞의 단차를 거쳐 앞마당으로 공간이 확장된다. 또한 뒷마당으로도 확장되는데, 이 뒷마당은 안채의 앞마당과 공유된다. 대청으로부터 확장된 앞마당은 누마루 앞 공간인 동선을 유도하는 중문간으로 확장되고, 중문간을 넘어 행랑마당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확장된 마당은 공간이 공유, 흡수되어 무한 공간이 된다. 한편 안채의 앞마당으로도 볼 수 있는 사랑채의 뒷마당의 수많은 사건들은 대청으로 이어져 행랑마당으로 확장되고, 행랑마당은 다시 중문간으로 확장, 공유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앞마당으로부터 확장되었던 공간이 뒷마당으로부터 확장된 공간과 같고 모든 공간은 사건으로부터 확장되어 공유, 흡수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각 공간이 계속해서 반복, 순환되는 한국전통마당의 전의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추사고택은 서백당과 흡사한 구조로 앞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뒷마루와 대청으로 1차 확장되고, 문간을 넘어 사랑채로 이어지는 동선 유도공간으로 2차 확장된다. 마당은 사건으로 하여금 다른 공간으로 흡수, 통합된다.

5. 결론

마당은 여백으로 나타나는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가진 우주(宇宙)를 담은 일체성의 공간이다. 비움의 마당은 사건으로 채워지면서 허(虛)의 무한공간이 된다. 기존의 연구에서 마당은 중간영역, 매개·사이공간으로 분석되었지만, 본고는 '허(虛)의 무한성'에 초점을 맞추어 마당은 핵 분열하는 순환체임을 밝혔다. 그리고 사건과 관계 맺어진 마당은 '사건의 연결', '사건의 매개', '사건의 완충', '사건의 여과'의 역할로써 전의적 특성이 도출 된다. '사건의 무한성', '경험과 전이성', '역할과 퍼지성', '사용자와 다용도성', '간의 상호관계성'들은 한국전통마당의 전의적 특성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의 무한성'은 마당 공간으로부터 무한한 사고로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마당은 자연과 자아가 합일하고 융화하는 체험을 하는 공간임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일상에 자연을 담아 놓는 사건의 마당은 무한한 사고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전의적 공간이다. 둘째, '경험과 전이성'은 인간이 이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폭을 넓혀주는 특성으로 마당에서 인간은 시선의 이동에 따른 감각적 경험과 동선이 변화하는 사건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 전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셋째, '역할과 퍼지성'은 잠재성을 지닌 빈 마당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당이 외부인지, 내부인지 구분을 하기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특성이다. 대문의 개폐, 채의 들문과 창문이 개폐되는 사건을 통해 마당의 퍼지성이 나타나며 마당의 역할은 다양해진다. 넷째, '사용자와 다용도성'은 사용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건의 출현으로 마당이 여러 용도로 변화되는 것이다. 마

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사건들을 사용자에 맞게 분석하여 다용도성을 도출해 내었다. 마지막으로 '간의 상호관계성'은 채와 마당은 대립·정복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작용을 주고받는 존재이므로, 각 공간의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관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특성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전통마당 공간의 특성 발현에 내재하는 성질로서 들뢰즈의 생성사유인 사건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전의(轉依)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로써 현상적 측면의 설명만 있었던 한국전통마당의 특성들에 대한 발생론적 측면의 설명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마당이 문과 채 사이를 잇는 공간을 넘어 '삶의 사건을 담는 그릇'의 의미로 접근한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서양의 생성사유인 들뢰즈의 '사건' 개념과 전통공간의 연결 고리를 찾으려는 시도에 가치를 두고자 한다. 응축적 구도를 가진 들뢰즈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옛 전통 공간과도 연결이 가능한 개념인 것이다. 마당을 포함한 한국 전통공간에는 예술 안에서 무한할 수 있는 정신이 존재하기에 무한한 해석 역시도 가능하다. 그러한 무한공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현대적 공간의 활용을 위한 시도와 연구를 기대 해 본다.

참고문헌

1. 김개천, 명목의 건축, 안그라픽스, 2004
2. 김봉렬, 삶과 삶의 공간, 이상건축, 1999
3.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5.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6. 안영배, 한국건축의 외부공간, 보진재, 1998
7.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3, 기린원, 1994
8. 이정우, 사건의 철학, 철학아카데미, 2003
9.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거름, 1999
10.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11. 요코야마 코이치, 唯識哲學, 서울 경서원, 1997
12.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6
13. 퍼지기술연구회, 퍼지이론해설, 기전연구사, 1992
14. Amos Ih Tiao Chang,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기문당, 1996
15. KBS아트비전 전통가옥 70선, KBS 아트비전, 1994
16. 이성관, 한국 전통적 건축 공간구성의 특징, 서울대 석사논문, 1975
17. 이용석, 일상과 비일상 측면에서 본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18. 이진길, 한국 전통건축 공간의 무자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2
19. 전경배, 이조 전통건축의 외부공간에 관한 연구-마당공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양대, 1979
20. 김봉렬, 방밖의 방-안마당의 성격, 건축과 환경, 1987
21. 김성원·김진균, 한국 전통건축에서 '들러쌌'에 의한 '비움'과 '채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17권 2호, 1997
22. 김용진·진정, 들뢰즈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통한 건축에 있어서 사건 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대회논문집 제25권 1호, 2005
23. 이용희·이중우, 동양사상의 중심성을 통하여 본 전통주거의 마당공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 11권, 5호, 1995
24. 이진길, 한국전통건축의 사이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17권 1호, 2001
25. 정무용, 생활정서와 공간의 전이성, 대한건축학회지 건축, 1984

<접수 : 2008. 10. 31>